

# 이탈리아의 소득보장과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책대응

**Emanuele Ferragina**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 Paris) 사회학과 부교수)  
**Federico Filetti**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많고<sup>1)</sup> 사망자 수는 두 번째로 많다 (2020년 8월 9일 현재, 표 1 참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멈추기 위해 2020년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이탈리아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였고 이는 결국 봉쇄조치로 이어졌다. 인구 1만 명당 중환자 치료 병상 수가 8.42개인 상태에서<sup>2)</sup>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급속한 증가는 공공의료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2020년 3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이탈리아는 유럽 최초로 전국에 엄중한 봉쇄조치를 단행하였고, 이에 따라 ‘비필수(non-essential) 사업장’이 폐쇄되었으며 국민의 국내외 이동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에 명백한 파급효과를 가져와 GDP는 크게 하락하고(2020년 1분기 대비 2분기는 12.4% 하락함<sup>3)</sup>) 평균 가계소득도 큰 영향을 받았으며, 고용 및 실업률에 미친 효과는 아직 측정하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4)</sup> 이러한 상황은 안정적인 중간-고소득 일자리를 가진 이들과 불안정한 일자리 및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이들

1) Data updated on the 9<sup>th</sup> of August 2020.

2) Ministero della Salute(2017), *Annuario Statistico del Servizio Sanitario Nazionale*, [http://www.salute.gov.it/imgs/C\\_17\\_pubblicazioni\\_2879\\_allegato.pdf](http://www.salute.gov.it/imgs/C_17_pubblicazioni_2879_allegato.pdf)

3) EUROSTAT(2020), *Preliminary flash estimate for the second quarter of 2020*,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1156775/2-31072020-BP-EN.pdf/cbe7522c-ebfa-ef08-be60-b1c9d1bd385b>

4) OECD(2020), *Employment outlook 2020*. Retrieved: 15/08/2020, <http://www.oecd.org/employment-outlook/2020/>

간의 (이미 큰)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표 1> EU 회원국과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2020년 8월 9일 기준)

EU/EEA 회원국과 영국	확진자 수(명)	사망자 수(명)
스페인	314,362	28,503
영국	309,763	46,566
이탈리아	250,103	35,203
독일	215,891	9,196
프랑스	197,921	30,324
스웨덴	82,323	5,763
벨기에	73,308	9,870
루마니아	60,623	2,659
네덜란드	57,987	6,157
포르투갈	52,537	1,750
폴란드	51,167	1,800
아일랜드	26,644	1,772
오스트리아	21,935	721
체코	18,235	389
덴마크	14,442	617
불가리아	13,343	445
노르웨이	9,468	256
핀란드	7,568	331
룩셈베르크	7,113	119
크로아티아	5,543	157
그리스	5,421	211
헝가리	4,653	602
슬로바키아	2,566	31
슬로베니아	2,247	120
리투아니아	2,231	81
에스토니아	2,147	63
아이슬란드	1,955	10
라트비아	1,288	32
키프로스	1,233	19
몰타	935	9
리히텐슈타인	89	1
합 계	1,815,041	183,777

자료 :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ECDP).<sup>5)</sup>

5)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2020), "COVID-19 situation update for the EU/EEA and the UK", Retrieved: 09/08/2020, <https://www.ecdc.europa.eu/en/cases-2019-ncov-eueea>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고 특별비상대책을 단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EU도 관여하여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현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마련하였다. 유럽연합 기구들 내 복잡한 협상들이 실시된 결과 이른바 ‘차세대 EU 계획(next generation EU plan)’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EU 차원에서 공동의 재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이며, 그 재원은 주로 EU 회원국 공공부채 공동화를 통해 마련되었다.

이 글은 지금까지 실시된 조치를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이탈리아 중앙은행(Bank of Italy), 이탈리아 국가사회보험기구(Istituto Nazionale di Previdenza Sociale: INPS), 이탈리아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등과 같은 이탈리아 주요 국내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원자료와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봉쇄조치가 이탈리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로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를 설명한 뒤 코로나19 관련 위기를 맞아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알아본다. 특히, 사회보장 및 소득보장제도의 3대 주축이라 할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제도, 상병수당 및 사회부조를 검토한다. 셋째로는, 기존의 제도 수혜대상이 아니었던 이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 및 EU 차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 비상대책을 살펴본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을 간략하게 평가하면서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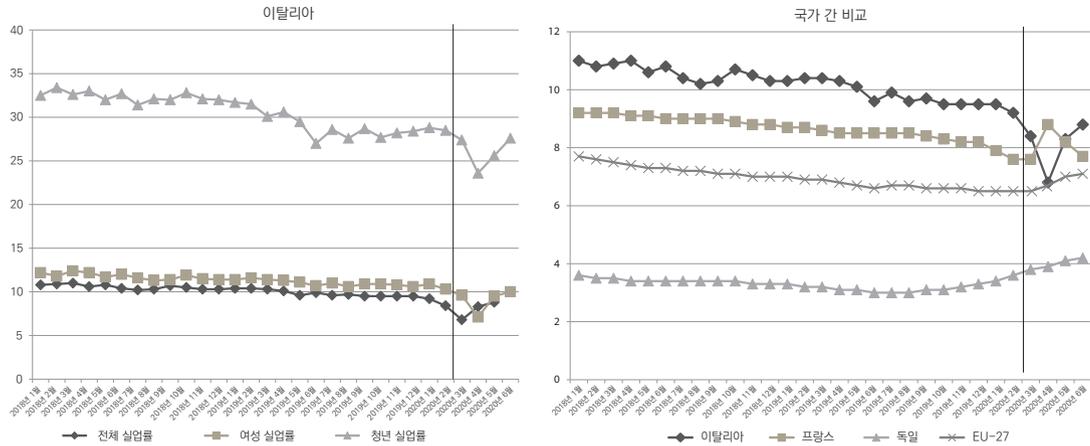
## ■ 코로나19 위기가 이탈리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그림 1]은 이탈리아의 실업률 동향을 보여주고 이를 프랑스·독일 및 EU-27 평균의 추이와 비교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월별 시계열 자료이며, 봉쇄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2020년 3월을 세로선으로 구분한다.

이탈리아의 실업률을 전체 노동자의 실업률과 여성 및 청년 집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18년 1월 이후로 (독일과 EU-27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감소하였다. 놀랍게도 실업률은 봉쇄조치가 시작된 이후로도 계속 감소하여 2020년 3월과 4월에는 (8.4%에서 6.8%로) 1.6%p 낮아졌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동향의 주된

[그림 1] 이탈리아 및 주요 유럽국가의 월별 실업률(2018년 1월~2020년 7월)

(단위 : %)



주 : Eurostat 데이터를 사용해 저자가 작성. 계절조정 데이터. 봉쇄조치 시작 시점인 2020년 3월을 세로선으로 구분함.

원인은 실업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데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봉쇄조치 중 돌봄 책임이 늘어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힌 이들이 여럿 있었다.<sup>6)7)</sup> 2020년 5월과 6월에 코로나19 위기가 미친 부정적 영향이 명백하게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5월 실업률은 전월대비 1.5%p 증가하였고 여성과 청년의 실업률은 각각 2.4%p, 2%p 증가하였다. 6월에는 실업률이 (전월대비 0.5%p 증가한) 8.8%에 이르렀고, 여성 실업률은 10%(전월대비 0.5%p 증가), 청년 실업률은 27.6%(전월대비 2%p 증가)를 기록하였다. 특히, (이미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가장 불안한 고용상 지위에 있던) 여성과 청년층은 봉쇄조치 직후 시작된 경기침체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집단이다.

지난 20년에 걸쳐, 그리고 특히 1997년 이후로 이탈리아는 자국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

6) OECD(2020), *Unemployment Rates - Updated: June 2020*. Retrieved: 09/08/2020, <http://www.oecd.org/newsroom/unemployment-rates-oecd-update-june-2020.htm>

7) ISTAT(2020), *EMPLOYMENT AND UNEMPLOYMENT - APRIL 2020*. Retrieved: 09/08/2020, [https://www.istat.it/it/files/2020/06/employment\\_unemployment\\_202004.pdf](https://www.istat.it/it/files/2020/06/employment_unemployment_202004.pdf)

해 오랜 기간에 걸쳐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였다.<sup>8)</sup> 이러한 개혁 과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이른바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격차를 증가시켰다.<sup>9)</sup> 이탈리아의 봉쇄조치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상황을 악화시켰고 내부자와 외부자의 불평등을 한층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다시 (시차가 있긴 했지만) 고용과 소득수준의 감소를 야기하였다. 평균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가구 총소득이 27.3% 감소했다.<sup>10)</sup>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봉쇄조치가 시작된 이후로 소득이 감소했고,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15%는 봉쇄조치 이전과 비교할 때 가처분 소득이 50% 이하로 감소하였다<sup>11)</sup>. 자영업자,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의 소득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80%가 2020년 4월과 5월에 소득이 감소하였고, 36%는 봉쇄 이전과 비교하여 소득이 50% 이하로 줄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구소득은 봉쇄기간 중 절반으로 줄었다. 또한,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50%는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필수 지출을 충당할 유동성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소득 감소와 실업 위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사회보장 및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고 기존 제도의 수혜대상이 아닌 이들을 위해 두 가지 법령, 즉, 2020년 3월에 「Cura Italia」법령<sup>12)</sup>과 2020년 5월에 「Rilancio」<sup>13)</sup>법령을 제정하여 여러 가지 특별 조치를 시행하였다.

8) For a detailed discussion of the reform process, see Emanuele Ferragina, Alessand Arrigoni, & Thees F. Spreckelsen(Forthcoming 2020), “The rising invisible majority: Bringing society back into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38.

9) For an analysis see Patrick Emmenegger, Siljia Häusermann, Bruno Palier, & Martin Seeleib-Kaiser(Eds.)(2012),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UP: New York.

10) Banca d'Italia(2020), *Le imprese e i lavoratori in cassa integrazione Covid nei mesi di marzo e aprile*, [https://www.bancaditalia.it/media/notizie/2020/Prime-evidenze-CIG\\_29072020.pdf](https://www.bancaditalia.it/media/notizie/2020/Prime-evidenze-CIG_29072020.pdf)

11) Andrea Neri, & Francesca Zanichelli(2020), *Principali risultati dell'indagine straordinaria sulle famiglie italiane nel 2020*. Banca d'Italia, <https://www.bancaditalia.it/media/notizie/2020/Evi-preliminari-ind-straord-famiglie.pdf>

12) D.l. 17 marzo 2020.

13) D.l. 19 maggio 2020.

## ■ 기존의 소득보장제도

아래에서는 이탈리아 노동시장 보호 제도의 3대 주축인 고용안정제도, 상병수당 및 사회부조의 주요 특성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각 제도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설명한다.

### 고용안정제도

이탈리아의 고용안정제도는 분절되어 있는 노동시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특정 집단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각 재원과 수급자격 요건이 다르다.<sup>14)</sup>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두 가지 주요 고용안정제도, 즉, ① 소득보장기금과 ② (아직까지 이탈리아에서는 매우 미비한) 고전적인 실업보험이 활용되었다.

소득보장기금(Cassa Integrazione Guadagni: CIG) 제도는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해당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소득 감소분을 정부가 사회보장기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전한다. 소득보장기금은 아래와 같이 지원 대상에 따라 네 가지 급여로 구분된다. ① 일반소득보장급여(Cassa Integrazione Guadagni Ordinaria: CIGO)<sup>15)</sup>는 제조업과 건설업종의 노동자 1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하여 휴업이나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국가사회보험기구(INPS) 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기업 노동자 임금의 80%를 최장 13주까지 지급한다. ② 특별소득보장급여(Cassa Integrazione Guadagni Straordinaria: CIGS)<sup>16)</sup>는 노동사회정책부가 재정을 담당하며, 적용대상은 일반소득보장급여(CIGO)와 동일하고 경

14) See Maurizio Ferrera(1996), "The 'Southern model' of welfare in social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 (1), 17-37; see also Emanuele Ferragina(2013), *Chi troppo chi niente*. Bur-Rizzoli: Milano.

15) INPS(2020), *Cassa Integrazione Guadagni Ordinaria*. Retrieved: 10/08/2020, <https://www.inps.it/NuovoportaleINPS/default.aspx?itemdir=50599&lang=IT>

16) INPS(2020), *Cassa Integrazione Guadagni Straordinaria*. Retrieved: 10/08/2020, <https://www.inps.it/NuovoportaleINPS/default.aspx?itemdir=50596&lang=IT>

영상 위기를 겪고 있거나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지원하거나 보완한다(단, 이전 90일 이상의 근무를 수급 요건으로 함). ③ 현행규정 적용대상 외 소득보장급여(Cassa Integrazione Guadagni in Deroga: CIGD)<sup>17)</sup>는 일반소득보장급여(CIGO) 신청대상이 아닌 노동자 15인 미만 기업, 이를 이미 소진한 기업, 중소기업, 사회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노동자에게 (주당 최장 40시간에 대한) 임금의 80%를 보전한다. 대상 사업체가 단일 지역이나 시/도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탈리아 해당 지역(지자체)이 재원을 부담한다. 그 외에는 노동사회정책부가 재정부와 함께 재정을 담당한다. ④ 통합연대기금(Fondo d'Integrazione Salariale: FIS)<sup>18)</sup>은 일반 및 특별 소득보장급여(CIGO, CIGS) 적용대상이 아닌 산업의 노동자 5인 이상 50인 이하 기업에서 휴업 또는 조업 중단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급여 수준은 소득보장급여와 동일하다. 국가사회보험기구(INPS)에서 기금을 운용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sup>19)</sup> 40억 유로의 재원을 투입하여 규정 적용대상 외 소득보장급여(CIGD)<sup>20)</sup>를 전체 산업의 노동자에게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자 5인 미만 기업이 최장 9주간 CIGD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미 특별소득보장급여(CIGS)를 지급받았던 기업들도 CIGD대상이 되었다. 「Rilancio」 법령의 제정으로 소득보장기금에 예산이 추가되어 일반소득보장급여(CIGO) 지급기간이 2020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국가사회보험기구(INPS), 노조, 정부 간에 체결된 협약을 통해 모든 행정절차는 간소화되었다. 게다가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을 (최대 40%까지) 미리 지급할

17) INPS(2020), *Cassa Integrazione Guadagni in Deroga*. 10/08/2020, <https://www.inps.it/NuovoportaleINPS/default.aspx?itemdir=50278&lang=IT>

18) INPS(2020), *Fondo D'Integrazione Salariale*. Retrieved: 10/08/2020, <https://www.inps.it/NuovoportaleINPS/default.aspx?itemdir=50262&lang=IT>

19)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2020), *I provvedimenti del Governo a sostegno del Lavoro*. Retrieved: 10/08/2020, <https://www.mef.gov.it/covid-19/I-provvedimenti-del-Governo-a-sostegno-del-Lavoro/>

20) CIGD는 2008년 경제위기 당시 도입되었다가 이후 중단되었던 제도로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시행되었다. Cesare Damiano(former Minister of Labour): <https://www.ipsoa.it/documents/lavoro-e-previdenza/amministrazione-del-personale/quotidiano/2020/08/08/cassa-integrazione-ammortizzatori-sociali-bilancio-covid-19>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경우 국가사회보장기구가 1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비용을 환급해 주도록 했다. FIS도 (노동자 5~15인의) 소기업에 확대 적용되었다. 민간기업 51%와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노동자 40%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소득보장급여를 수급받았다.<sup>21)</sup>

실업보험(*nuova assicurazione sociale per l'impiego: NASpI*)<sup>22)</sup>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sup>23)</sup> NASpI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과거 실업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당 노동자가 지난 4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급된다. 예를 들어, 실업보험료를 52주간 납부한 노동자는 26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의 지급대체율은 지난 4년간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75%이다.

준종속노동자를 위한 실업보험(*Indennità mensile di disoccupazione: DIS-COLL*)<sup>24)</sup>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자영업자, 준종속노동자,<sup>25)</sup>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현 회계연도에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의 절반으로(즉, 가장 6개월), 실직 전 급여의 최대 75%를 대체한다. 2020년 3월 1일과 4월 30일 사이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NASpI와 DIS-COLL 모두 지급기간이 2개월 연장되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위기 동안 이 두 프로그램의 수혜자 수에 관한 자료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21) Banca d'Italia(2020), *Le imprese e i lavoratori in cassa integrazione Covid nei mesi di marzo e aprile*, [https://www.bancaditalia.it/media/notizie/2020/Prime-evidenze-CIG\\_29072020.pdf](https://www.bancaditalia.it/media/notizie/2020/Prime-evidenze-CIG_29072020.pdf)

22) INPS(2020), *NASpI: indennità mensile di disoccupazione*. Retrieved: 10/08/2020, <https://www.inps.it/nuovoportaleinps/default.aspx?itemdir=50593>

23) The term 'involuntary unemployment' indicates that the lack of employment is due to causes beyond worker's will.

24) INPS(2020), *DIS-COLL: indennità mensile di disoccupazione*. Retrieved: 10/08/2020, <https://www.inps.it/nuovoportaleinps/default.aspx?itemdir=50183>

25) The category includes the workers denominated in Italian Co.co.co.

## 상병수당

상병수당제도(Indennità di malattia per lavoratori dipendenti)<sup>26)</sup>는 정규직 노동자로서 한시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이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해당 노동자는 급여의 100%를 연간 최장 18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기간에는,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모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노동자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졌다. 추가적으로 노동자의 가족이 병에 걸린 경우 월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104 법(Law 104)’과 매월 6일간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를 보장한 「Cura Italia」 법령 및 「Rilancio」 법령으로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월 유급휴가가 9일로 연장되었다. 이를 위한 예산은 8억 유로에 달한다<sup>27)</sup>.

## 사회부조

‘시민소득(Reddito di Cittadinanza: RdC)’<sup>28)</sup>은 빈곤 완화와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재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조사에 기반한 최저소득보장제도다. 개인 및 가구별로 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 수급을 위해서 지역 잡센터의 ‘근로약정(pact for work)’을 수락하여야 한다. RdC는 해당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67세가 넘으면 시민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시민연금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급여는 최장 18개월간 지급되며 1개월 중단된 후에 갱신할 수 있다. 급여액은 최소 월 480유로(한화 약 65만 원)이다. 이탈리아 정부가 다른 일회성 지원금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이 제도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강화되지는 않았다.

26) INPS(2020), *Indennità di malattia per lavoratori dipendenti*. Retrieved: 10/08/2020, <https://www.inps.it/nuovoportaleinps/default.aspx?itemdir=50159>

27)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2020), *I provvedimenti del Governo a sostegno del Lavoro*. Retrieved: 10/08/2020, <https://www.mef.gov.it/covid-19/I-provvedimenti-del-Governo-a-sostegno-del-Lavoro/>

28) INPS(2020), *Reddito di Cittadinanza e Pensione di Cittadinanza*. Retrieved: 10/08/2020, <https://www.inps.it/nuovoportaleinps/default.aspx?itemdir=53209>

## ■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특별비상대책

「Cura Italia」와 「Rilancio」 법령을 통해, 이탈리아 정부는 기존의 소득보장제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다수의 예외적인 조치를 실시하였다. 저자들은 이탈리아의 모든 관련 정책들을 ① 일회성 지원금, ② 정리하고 한시적 제한, ③ 가족 정책, ④ 불법노동자의 합법화, ⑤ 유럽 차원의 실업위험 완화라는 5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아래에서는 각 방안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sup>29)</sup>

### 일회성 지원금

「Cura Italia」 법령은 모든 자영업자, 준종속노동자,<sup>30)</sup> 장인, 상인, 관광업의 계절 노동자에게 3월 한 달 동안 600유로(약 81만 6천 원)의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5백만 명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았다. 「Rilancio」 법령이 채택되면서 4월에도 일회성 지원금 지급이 연장되었고 그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또한, 동법령에 따라 2020년 3월과 4월의 소득이 전년 동기대비 33% 이상 감소한 모든 자영업자에 대해 1천 유로(약 136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 지원금은 동법령 시행기간 동안 일을 그만둔 자영업자의 동업자(self-employed collaborator)에게도 지급되었다. 또한, 2020년 5월부터 모든 장인, 상인 및 농민을 사업자로 간주하여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의 경우 지원금 지급액은 소득 손실분에 비례하며 1천 유로(약 136만 원)를 최대 금액으로 한다.

봉쇄조치로 인해 경제활동이 종료, 단축 또는 중단된 노동자와 자영업자 중 「Cura Italia」 법령에 의한 600유로(약 81만 6천 원)의 지원금 수혜대상이 아닌 이들을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소득(last resort income)’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의 예산은 2020년

29)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2020), *I provvedimenti del Governo a sostegno del Lavoro*. Retrieved: 10/08/2020, <https://www.mef.gov.it/covid-19/i-provvedimenti-del-Governo-a-sostegno-del-Lavoro/>

30) Co.co.co. in gestione separate.

의 경우 3억 유로에 이르며, 약 50만 명에게 지급된다.

생활 조건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하며 4월에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모든 개인과 가구에 대해 정부는 '비상소득(emergency income)'을 지급하였다. 이는 자산조사에 기반한 특별소득보장제도로 가구 구성(과 장애인 구성원 유무)에 따라 400~800유로(약 54~108만 원)가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약 100만 가구에 지급되며 (RdC 등의) 사회부조나 코로나19 관련 일회성 지원금과 같은 다른 유형의 소득보장지원금과 합산되지 않는다.

주당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1건 이상 체결한 (단, 2월 23일 당시 근무 중인) 모든 부모 및 돌봄 도우미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2020년 4월과 5월에 월 500유로(약 68만 원)의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 제도의 예산은 5억 유로 미만이다.

## 해고 금지

이탈리아 정부는 「Cura Italia」 법령을 통해 우선 2020년 5월까지 해고를 금지하고, 2월 23일 이후 진행된 해고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이후 「Rilancio」 법령을 통해 해고 금지를 5개월 연장했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해고 방지를 위해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소득보장급여(CIG)와 유사하며 코로나19 위기 동안 노동자의 해고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의 최장 수혜기간은 12개월이며 지원금은 노동자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 가족 및 육아 정책

육아휴가 정책에는 6억 6천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정책이 강화되었다. 12세 미만 자녀를 둔 민간부문 노동자는 (임금의 50%가 지급되는)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Rilancio」 법령에 의해 휴가기간은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2020년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연속 또는 분할 사용 가능). 또한,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 달간 600유로(약 81만 6천 원)를 일회성으로 지급하였다. 이 지원금은 1개월 연장되었고, 그 금액도 2배로 인상되었다. 보건의료 부문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월 1천 유로(약 136만 원)까지 지급

된다(이 조치를 위해 정부는 1억 5천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 불법노동자의 합법화

「Rilancio」 법령에 따라, 정부는 사용자들에게 비합법적 고용계약의 존재를 자진신고하거나 외국 출신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현재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비유럽연합 국적자도 6개월 임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고용계약 조항에 따라 해당 임시 비자는 자동적으로 근로비자로 전환된다.

## EU 차원의 일자리 보호(SURE)

2020년 5월 19일, EU는 회원국에게 현 위기 동안 노동자들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도록 1천억 유로를 대출해주는 한시적 프로그램인 ‘실업위험 완화 긴급지원제도(Support to Mitigate Unemployment Risk in an Emergency: SURE)<sup>31)</sup>’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EU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2022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 ■ 전반적 평가

봉쇄조치 기간과 이후에 소득을 보장하고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펼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모를 보였다. 소득보장 방안들은 이탈리아 은행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듯 개인의 소득과 가구소득을 유지하기에는 역

31) European Council, “Covid-19: il Consiglio adotta lo strumento europeo di sostegno temporaneo per attenuare i rischi di disoccupazione in un'emergenza(SURE)”, 2020. Retrieved: 09/08/2020, <https://www.consilium.europa.eu/it/press/press-releases/2020/05/19/covid-19-council-reaches-political-agreement-on-temporary-support-to-mitigate-unemployment-risks-in-an-emergency-sure/>

부족이었다.<sup>32)</sup> 기존 제도와 특별비상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도 충분치 않았고 접근성에서도 제한적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30년에 걸쳐 복지가 축소되고 이러한 경향이 2008년 위기 이후로 더욱 가속화된 이탈리아의 구조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복지 혜택을 받는 이들의 입장에서도 만성적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지원 수요의 전례 없는 증가로 인해 급여 지급이 지체되었다.

이탈리아에는 고용계약 형태가 세분화되어 있고 보편적 기본소득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상당히 많은 제도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의 정책대응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다. 봉쇄조치로 인해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청년 등과 같은 취약한 노동자와 달리 일부 노동자만 고용과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전통적인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sup>33)</sup>

2020년 7월 21일, 유럽의 지도자들은 '차세대 EU 계획'이라는 합의를 도출하였다.<sup>34)</sup> 이 합의는 부채 공동화(다시 말해, 공동 채권의 발행)를 위한 최초의 시도이며, 아마도 EU 내 공동 재정정책의 시작이기도 하다. 차세대 EU 계획은 EU 회원국들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7천 500억 유로 규모의 협약이다. 이 프로그램과 함께 EU 회원국들은 1조 743억 유로에 달하는 EU 차원의 장기 예산(2021~27년)에도 합의하였다. 이탈리아는 협상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기금의 상당 부분을 받게 될 것이다. 이탈리아는 교부금 810억 유로, 대출금 1,270억 유로를 합하여 총 2천 90억 유로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 금액의 70%는 2021~22년에 지급된다.<sup>35)</sup> 

32) Andrea Neri, & Francesca Zanichelli(2020), *Principali risultati dell'indagine straordinaria sulle famiglie italiane nel 2020*, Banca d'Italia, <https://www.bancaditalia.it/media/notizie/2020/Evi-preliminari-ind-straord-famiglie.pdf>

33) See Emanuele Ferragina, Alessand Arrigoni, & Thees F. Spreckelsen(2020).

34) European Council(2020), *COVID-19: la risposta dell'UE alle ricadute economiche*. Retrieved: 10/08/2020, <https://www.consilium.europa.eu/it/policies/coronavirus/covid-19-economy/>

35) Presidenza del Consiglio dei Ministri(2020), *Informativa del Presidente del Consiglio all'esito del Consiglio Europeo del 17-21 luglio 2020*, Retrieved: 10/08/2020, <http://www.governo.it/it/articolo/informativa-del-presidente-del-consiglio-all-esito-del-consiglio-europeo-del-17-21-luglio>